

**동아시아연구원(EAI)과 言論NPO가
「제4회 한일 국민상호인식조사」 결과를 발표합니다.**

※[엠바고] 본 내용에 대한 인용은 라디오·텔레비전·통신사·웹 등에서는 2016년 7월 20일(수) 16:00 이후, 신문의 경우, 7월 21일(목) 조간부터 보도해주시요.

◆ 제4회 한일 국민 상호인식조사

한국의 싱크탱크인 동아시아연구원(EAI) (원장: 이숙종)과 일본의 비영리 싱크탱크인 겐론NPO (대표: 쿠도 야스시)는 한일 양국 국민을 대상으로 한 '한일국민 상호인식 조사'를 2016년 6월부터 7월에 걸쳐 실시하여, 그 조사결과를 7월 20일 오후 2시 프레스센터에서 발표한다. 이번 조사는 2013년부터 매년 실시한 제1~3회 조사에 이어 4회째 실시한 결과이다. 본 조사는 양국 국민의 상대국에 대한 이해와 인식의 변화를 지속적으로 파악하여, 양국 국민 간에 존재하는 다양한 인식의 차이를 해소하고 상호이해를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2016년 조사의 주요 결과는 7월 20일 오후 2시 서울 프레스센터 기자회견장에서 50여명의 국내외 외신기자들이 참여하는 기자회견을 통해 발표한다. 본 기자회견의 발표 자료는 (1) 본 요약 발표문 (2) 주요 데이터 테이블 (3) 주요결과 보고서에서 확인할 수 있다.

◆ 내외신 기자회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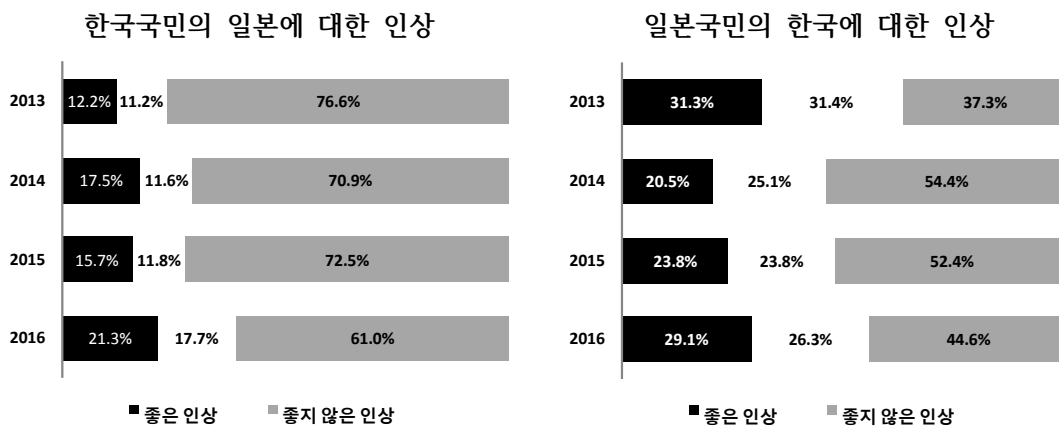
- 일시: 2016년 7월 20일 수요일 오후 2시
- 장소: 서울 프레스센터 기자회견장(19층)
- 발표: 이숙종(동아시아연구원), 김보미(동아시아연구원), 쿠도 야스시(겐론NPO)

본 조사의 자세한 결과는 이후 동아시아연구원과 겐론NPO가 공동으로 9월 1~2일 서울에서 개최하는 '제4회 한일미래대화'에 보고되어 다양한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제4회 한일미래대화를 통해 양국의 민간 전문가와 지식인들이 한 자리에 모여 현재 악화되고 있는 양국 국민인식 차이를 좁히고 냉각되고 있는 한일관계를 개선할 방안에 대해 심도 깊게 논의할 계획이다. (※'제4회 한일미래대화' 개요에 대한 별지를 참조해 주십시오.)

◆ 제4회 한일 국민 상호인식조사 주요 결과

이번 조사결과는 부정적 상호인식의 벽은 높지만, 변화의 모멘텀이 발견된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가장 특징적인 결과는 악화일로를 걷고 있던 한일 양국민의 부정적 상호인식에 제동이 걸리고 개선의 조짐이 조사 항목 곳곳에서 발견되고 있다는 점이다. 역설적이게도 한일국교정상화 50주년의 화두가 "관계정상화"에 집중될 정도로 최근 3-4년 간 한일관계는 최악의 상황이었다. 3년 6개월 동안 정상회담도 열리지 않았다. 이처럼 경색된 한일관계는 국민여론에 반영되어, 2015년 조사된 한일 국민상호인식조사는 최악의 양국 국민감정을 고스란히 드러냈다. 2015년 11월 한일정상회담 개최, 이어 12월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한일 외무장관회담 타결 등 정부간 관계개선의 노력이 양 국민의 상호인식에 어떻게 반영됐는지에 이번 조사는 주목했다.

1. 한일국민 간 상호 인식 개선 조짐: 최악의 한일 국민감정에 제동 걸려 조사 항목 곳곳에서 부정 인식 감소, 긍정 인식 증가



상대국에 대한 부정적 인식 감소, 긍정적 인식도 소폭 증가

한일 국민의 긍정적 상호인식이 부정적 상호인식보다 높았던 적은 없다. 다만 최근 몇 년간 악화되었던 상대국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줄어들고 긍정적 인식이 소폭이나마 증가했다는 점이 주목할 만하다. 일본에 대한 인상을 '좋지 않다', '대체로 좋지 않다'라고 응답한 한국인은 작년(72.5%)보다 줄어 61.0%로 나타났다. 한국에 대한 인상을 '좋지 않다', '대체로 좋지 않다'라고 응답한 일본인도 작년(52.4%)보다 줄어 44.6%를 기록했다. 한일 국민 모두 상대국에 대한 긍정적 인식도 소폭 증가했다. 일본에 대한 인상을 '좋다', '대체로 좋다'고 응답한 한국인은 작년 15.7%에서 다소

늘어나 21.3%를 기록했고, 일본 역시 작년 23.8%에서 29.1%로 늘어났다. 상대국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여전히 양국 모두 과반이거나 과반에 육박하지만, 증가하던 부정적 인식의 상호국민감정에는 제동이 걸려 추세에 변화가 발견됐다.

상대국 사회정치체제의 부정적 성격에 대한 인식도 감소

상대국 사회/정치체제의 성격에 대한 부정적 인식도 감소됐다. 현재 일본의 사회/정치체제의 성격을 군국주의, 패권주의, 국가주의 등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한국인이 다수지만, 부정적 인식은 작년에 비해 줄어들고 평화주의 등으로 답한 긍정적 인식은 늘어났다. 복수응답 문항에서 '군국주의'로 답한 한국인은 작년 56.9%에서 49.6%로, '패권주의'라고 답한 한국인은 작년 34.3%에서 24.7%로 각각 줄어들었다. 일본을 '평화주의'로 인식하고 있는 한국인은 8.5%에 불과하지만, 작년 4.2%에 비해 두 배 이상 늘어난 수치다. 일본인의 한국 사회/정치체제의 성격에 대한 인식도 개선됐다. '민족주의'로 답한 일본인은 작년 55.7%에서 48.1%로, '국가주의'로 답한 일본인은 작년 38.6%에서 30.2%로 각각 감소했다. 한국을 '민주주의', '평화주의'로 인식하고 있는 일본인은 작년 14.0%, 6.6%에서 각각 23.0%, 9.9%로 늘어났다. 상대국가에 대한 인식의 개선은 상대국 사회/정치체제의 성격에 대한 인식에도 긍정적으로 반영됐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일본인의 부정적 인상 감소,

아베 총리는 여전히 부정적 평가 높아

상대국 정상에 대한 인상에도 변화가 나타났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일본인의 부정적 인상은 작년 48.3%에서 11.7% 포인트 감소해 36.6%로 나타났다. 아베 총리에 대한 한국인의 부정적 인상은 작년 80.5%에서 소폭 줄었지만, 여전히 79.4%로 높게 나타났다. 양국 모두 상대방 정상에 대한 긍정적 인상은 증가했지만 여전히 미미한 수준이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일본인의 긍정적 인상은 6.7%, 아베 총리에 대한 한국인의 긍정적 인상은 4.1%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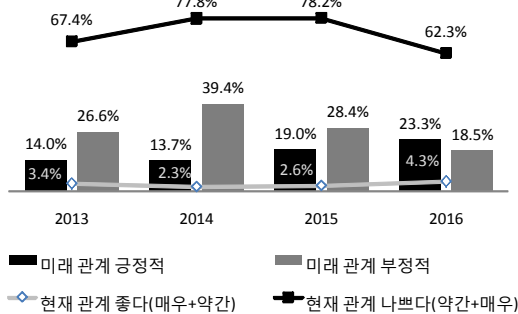
현재 한일관계에 대한 평가 및 전망도 개선

한일관계에 대한 양국 국민의 평가도 개선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현재 한일관계에 대해 '나쁘다'로 보는 일본인은 여전히 과반이 넘는 50.9%지만, 2014년 73.8%, 2015년 65.4%와 비교하면 크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인 경우에도 '나쁘다'는 응답은 62.3%로 여전히 높은 수준이지만, 2014년 77.8%, 2015년 78.2%과 비교할 때 15% 포인트 이상 크게 개선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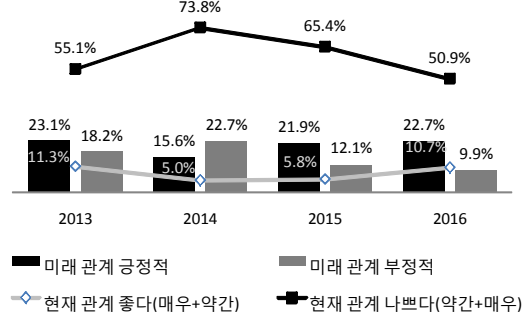
한일관계 개선에 대한 기대감도 드러났다. 향후 한일 관계가 현재의 한일관계와 '변함없을 것'으로 보는 한국인은 52.1% (지난해 45.9%), 일본인은 49.0% (지난해 41.4%)로 가장 많다. 그러나 '좋아질 것'('대체로 좋아질 것' 포함)이라는 응답을 보

면 한국인은 23.3% (지난해 19.0%), 일본인은 22.7% (지난해 21.9%)로 각각 지난해 보다 다소 증가했다. 또한 '나빠질 것'('대체로 나빠질 것'포함)이라고 보는 사람도, 일본인은 9.9% (지난해 12.1%), 한국인은 18.5% (지난해 28.4%)로 작년에 비해 크게 감소했다. 한일관계가 '현재와 변함없을 것'으로 전망한 사람들을 빼면, 양국 모두 '좋아질 것'으로 보는 사람이 '나빠질 것'으로 보는 사람을 상회했다. 양국 모두 관계 개선을 기대하는 사람이 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한국인이 생각하는 한일관계의 현재·미래



일본인이 생각하는 한일관계의 현재·미래



작년과 큰 변화는 없지만, 한일관계의 중요성에 대한 양국 국민들의 인식도 여전히 높다. 한일관계가 '중요하다'고 답한 한국인은 86.9%, 일본인은 62.7%였다. 양국 국민 대다수가 관계개선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2. 양 국민 모두 "역사"와 "영토" 문제가 부정적 인식의 원인
"정치지도자의 언행이 부정적 인식의 원인"으로 작용한 경우는 감소
한국의 '중국경사론'이 일본 국민의 반한감정에 미치는 영향 미미
낙관적 전망이 비관적 전망을 처음으로 상회해 역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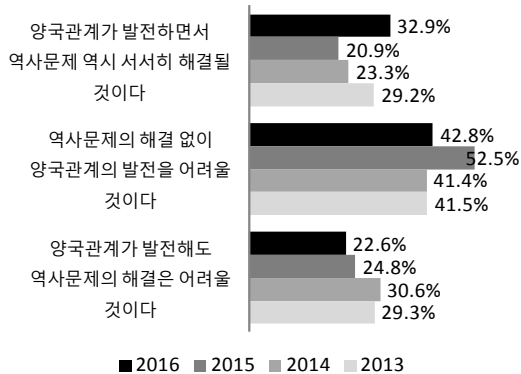
예상대로 양 국민들이 상대국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갖게 된 원인에는 "역사"와 "영토" 문제가 있었다. 한국인이 일본에 부정적인 인상을 갖는 이유는 '한국을 침략한 역사에 대해 제대로 반성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76.3%로 작년(74.0%)과 마찬가지로 가장 많았다. '영토 문제'도 70.1%(작년 69.3%)로 나타나, 이 두 가지가 예년처럼 압도적인 부정적 인식의 원인으로 조사됐다. 일본인이 한국에 대해 부정적인 인상을 갖는 이유 역시 한국인의 이유와 다르지 않았다. '역사 문제 등으로 일본을 계속 비판하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75.3%로 작년(74.6%)에 이어 70%를 넘어 가장 많았다. '영토 문제'가 39.9% (작년 36.5%)로 이어지는 구도도 동일하다.

가장 큰 변화는 상대국 정치지도자의 언행을 부정적 인식의 원인으로 삼은 양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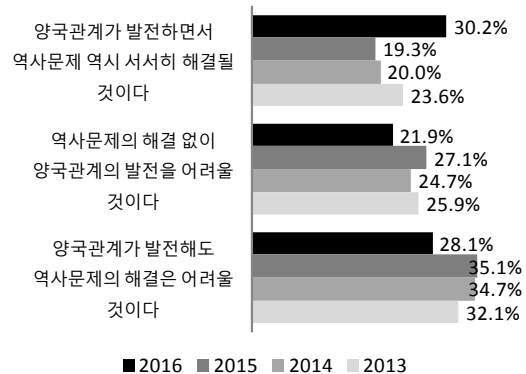
국민이 눈에 띄게 감소했다는 점이다. 부정적 인식의 원인을 '일본 정치 지도자의 언행에 호감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응답한 한국인은 작년 24.7%에서 올해는 14.6%로, '한국 정치 지도자의 언행에 호감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응답한 일본인도 작년 28.1%에서 올해 17.9%로, 각각 약 10% 포인트씩 감소했다. 추가 검증이 필요겠지만, 정치지도자들의 언행에 대한 평가의 개선이 부정적인 양국 인식 개선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대목이다.

일본 내 반한 감정의 원인으로 지목되어 온 이른바 한국의 '중국경사론'이 일본 국민들의 부정적 한국 인식에 미치는 영향이 거의 없다는 점도 눈 여겨 봐야 할 대목이다. '한국의 최근 움직임이 중국 쪽으로 기울어져 있기 때문'이라는 예시는 일본국민의 부정적 한국관의 원인을 좀 더 세밀하게 파악하기 위해 이번 조사에 새로 포함되었다. 그러나 한국의 '중국경사론'을 부정적 한국관의 원인으로 지목한 일본인은 1.8%에 불과해 거의 영향이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한국인의 역사문제와 한일관계에 대한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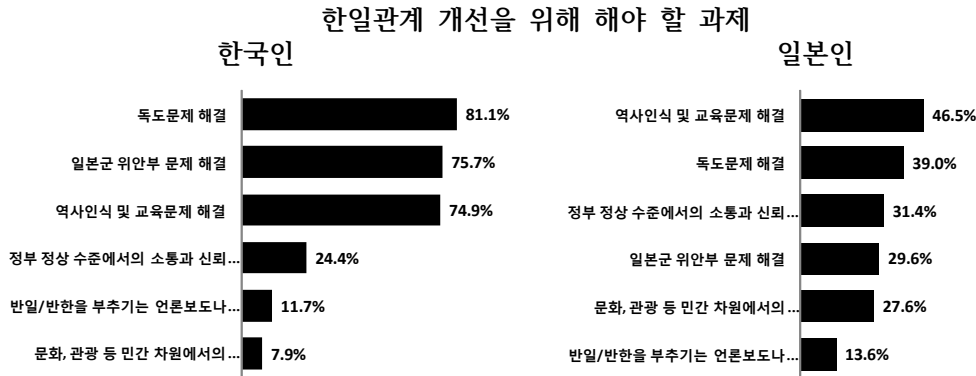
일본인의 역사문제와 한일관계에 대한 인식



양국관계 악화의 가장 큰 걸림돌이 "역사문제"임은 주지의 사실이다. 다만 역사인식 문제가 점차 해결될 것이라는 낙관적 전망이 비관적 전망을 상회해 역전한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조사결과다. '역사 인식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양국 관계는 발전하지 않는다'고 역사 문제의 해결을 한일 관계의 전제로 보는 한국인이 42.8%로 가장 많았지만, 지난해 52.5%에서 약 10% 포인트 감소했다. 그리고 '양국 관계가 발전함에 따라 역사 인식 문제는 점차 해결된다'는 답변이 지난해 20.9%에서 10% 포인트 이상 증가한 32.9%로, 2013년 한일국민상호인식조사를 실시한 이래 처음으로 30%를 넘어 섰다. '양국 관계가 발전함에 따라 역사 인식 문제는 점차 해결 된다'고 낙관하는 일본인도 지난해 19.3%에서 10% 포인트 이상 증가한 30.2%나 되었다. 이 같은 낙관적 전망은 양국 모두 비관적 전망을 처음으로 넘어섰다는 점에 큰 의의가 있다.

3. 관계발전의 주요과제는 "영토" "위안부" "역사인식"문제로 양국 이해관계가 참여한 이슈

한중일 3국 정상회의 의제로는 양 국민 모두 "북핵문제 해결"을 1위로 꼽아



한일관계 발전을 위해 양국이 해결해야 할 주요 과제는 양 국민 모두 "영토" "위안부" "역사인식" 문제를 꼽았다(복수응답). 한국인은 '독도문제'(81.1%), '위안부문제'(75.7%), '역사인식 및 교육문제'(74.9%)를 주요 해결과제로 응답했고, 일본인은 '역사인식 및 교육문제'(46.5%), '독도문제'(39.0%)에 이어 '정부 정상수준에서의 소통과 신뢰향상'(31.4%), '위안부문제'(29.6%)를 해결과제로 답했다. 문제는 관계발전의 주요 과제가 대체로 일치하지만, 이 과제들이 양국 간 이해관계가 참여한 이슈라는 점이다. 주제는 같지만 해결방향이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 '북핵문제를 위한 협력'은 일본인이 19.5%인 반면 한국인은 7.0%에 그쳐, 북핵문제를 한일관계 발전을 위한 과제로 기대하는 한국인은 상대적으로 적었다. 별도 문항에서 한중일 3국 정상회의가 다뤄야 할 주제에 대한 질문에서 한국인 역시 일본인과 마찬가지로 '북핵문제 해결'을 1순위(순위별 응답)로 응답한 것과는 차이가 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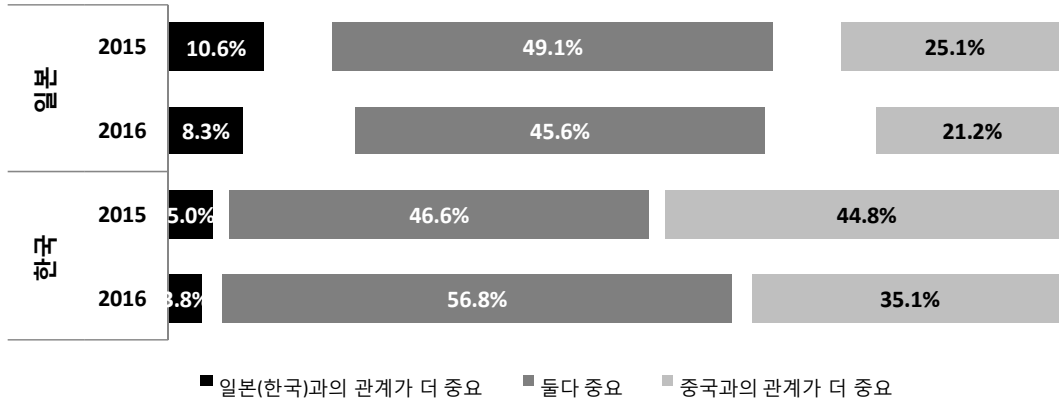
4. 양국 모두 '한일 및 대중관계 둘 다 중요' > '대중관계 더 중요' > '한일관계 더 중요' 순

한국인, '둘 다 중요' 증가, '한중관계 더 중요'감소/일본인, 유보적 태도 증가
 일본인이 한국인보다 상대에 대해 더 친근감 느껴

한일/한중관계의 상대적 중요성에 대한 양국인의 인식은 대체로 유사한 패턴을 보이고 있다. 한국인은 '한일 및 한중관계 둘 다 중요'가 56.8%, '한중관계 더 중요'는 35.1%, '한일관계 더 중요'가 3.8% 순으로 응답했다. 작년에 비해 '둘 다 중요'는 10%p 가량 증가했고 '한중관계 더 중요'는 10% 포인트 가량 감소했다. 일본인은 '일한 및 일중관계 둘 다 중요'가 45.6%, '일중관계 더 중요'는 21.2%, '일한관계 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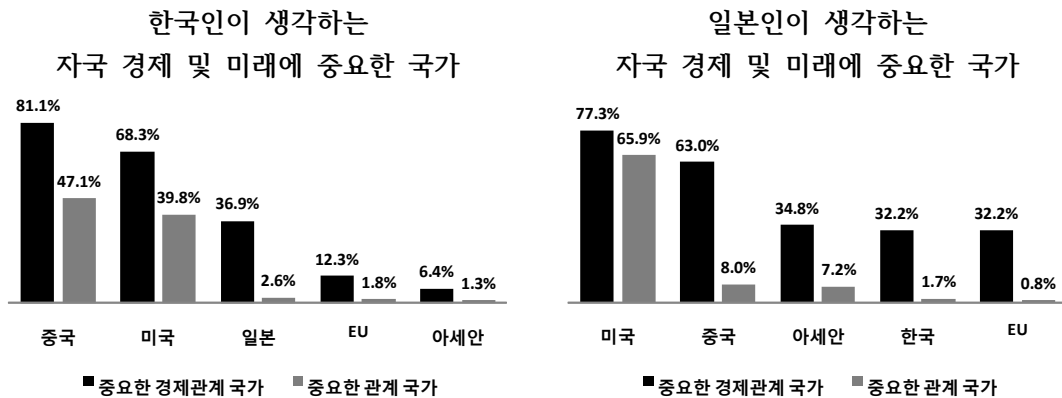
중요'는 8.3% 순으로 응답했고 각각의 응답은 작년에 비해 2~3% 포인트씩 감소했다. 반면 '어느 쪽도 아니다, 모르겠다'는 작년 15.0%였지만 올해는 24.6%로, 유보적 태도가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한일·한중 관계



상대국과 중국에 대한 친근감을 비교하는 질문에는 일본인이 한국인보다 상대에 대해 더 친근감을 느끼고, 한국인은 작년에 비해 감소하기는 했지만 중국에 더 친근감을 느낀다고 답했다. 일본인이 느끼는 친근감은 한국 38.2%, 중국 5.1%였지만, 한국인이 느끼는 친근감은 중국 34.2%, 일본 12.8%였다.

5. 일본인은 중국보다 미국을 압도적으로 중시, 한국인은 미국보다 중국을 상대적으로 중시 한일 경제관계의 중요성 인식에 비해 자국 미래에 중요한 국가로는 상대적으로 한일관계 저평가



일본인은 중국보다 미국을 압도적으로 중시하지만, 한국인은 미국보다 중국을 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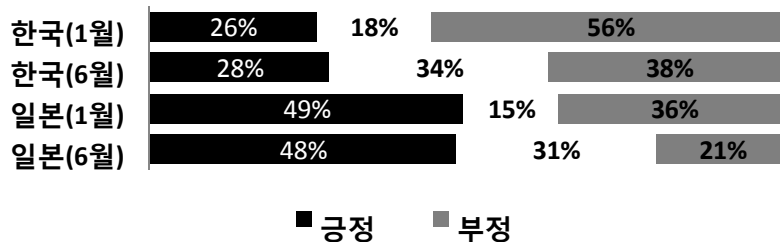
대적으로 중시했다. 자국의 미래를 생각할 때 세계에서 자국과의 관계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국가 또는 지역을 물어본 결과, 한국인은 동맹 관계에 있는 '미국'(39.8 %)보다 '중국'을 선택한 응답이 47.1%로 가장 많았다. 일본인의 응답은 동맹국인 '미국'이 65.9%로 가장 많았고, 두 번째인 '중국'이 8.0%에 불과했다. '한국'이라고 응답한 일본인은 1.7%, 일본이라고 응답한 한국인은 2.6%에 불과했다

경제관계의 중요성을 묻는 질문에서는 한일 양국의 중요성이 자국의 미래에 중요한 국가에 대한 답변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자국 경제에 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나라에 대해 일본인의 77.3%가 '미국'이라고 응답하여 63.0%인 '중국'을 크게 앞섰다. 또 일본인의 경우 'ASEAN 국가'(34.8%) '한국'(32.2%) 'EU'(32.2%), '인도'(28.6%) 등의 응답도 각각 30% 정도 보였다. 반면, 한국인에게서는 '중국'이 81.1%로, '미국'(68.3%)보다 10% 포인트 이상 높았다. '일본'을 선택한 사람도 36.9%나 되었다. 한일 양 국민 모두 상대국의 경제적 중요성을 36.9%, 32.2%로 평가한 부분은 앞서 소개한 자국 미래에 중요한 국가로 상대국을 지목한 문항과는 큰 차이를 보였다. 한일경제관계의 중요성은 양 국민 모두 인식하면서도 자국 미래에 중요한 국가 관계로는 한일관계를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하는 경향을 확인할 수 있었다.

6. 한일 정부간 위안부 합의, 일본인 절반 가까이 긍정적으로 평가해 부정적 평가 상회

한국인은 정부간 합의에 부정적 평가가 긍정적 평가보다 앞서
합의 직후와 비교할 때 한국인의 부정적 평가는 크게 감소(56% → 38%)

일본군 위안부 합의에 대한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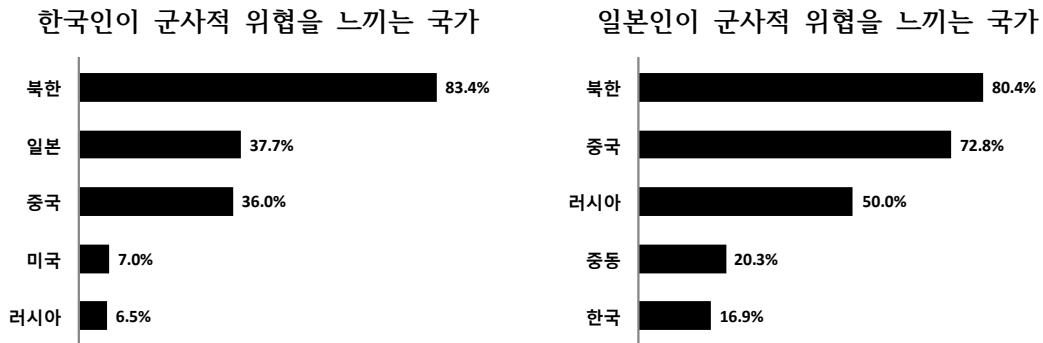


2015년 12월 한일 외무 장관 회담에서 이뤄진 한일 양국 정부간 위안부 문제 합의에 대해, 일본인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긍정적'과 '일정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의 합계, 이하 동일)는 응답이 48%로 '부정적으로 평가한다'('부정적'과 '대체로 부정적'의 합계, 이하 동일)의 21%를 크게 넘어섰다. 이는 한국 갤럽과 일본 요미우리신문이 실시한 1월 조사에서 나타난 부정적 평가 36%에서 상당히 줄어든 것이다. 이에 반해 한국인은 '부정적으로 평가한다'는 응답이 38%로서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는 응답의 28%를 웃돌아 일본측과 대조적인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간 합의 직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와 비교할 때 반대의견이 56%에서 38%로 크게 감소된 점이 특징적이다.

이번 일본 조사에는 포함되지 않고 한국 조사에만 포함된 문항은 긍정과 부정의 이유를 상세하게 물었다. 한국인이 위안부 합의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이유는 '사과수준이 충분하기 때문' (9%)이라기보다는 '더 이상 역사문제로 한일관계가 발목 잡혀서는 안 되기 때문' (66%) 혹은 '경제협력의 가능성' (20%) 때문이라는 점이다. 합의를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이유로는 '당사자 의견 반영 안돼' (66%), '법적 책임성이 명확하지 않아 사과로 불충분' (51%) 등이 거론되었다. '이번 합의로 위안부 문제가 (일정부분) 해결되었다'는 의견은 21%였고, '해결되지 않았다'는 의견은 74%였다. 이번 합의가 한일관계 개선에 '도움 되지 않을 것(58%)이라는 전망이 '도움 될 것'(33%)이라는 전망보다 높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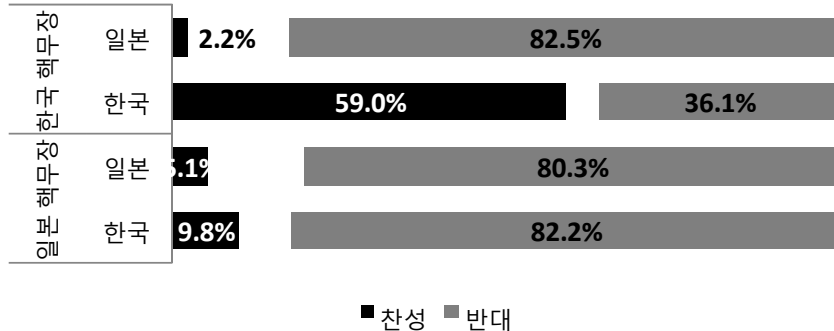
**7. 양국민 80% 이상이 북한을 최고의 군사적 위협국으로 인식
일본핵무장은 양 국민 80% 이상 반대,
한국핵무장은 일본 82.5% 반대, 한국은 59.0% 찬성**



양 국민 모두 북한을 최고의 군사적 위협국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일본인이 가장 큰 군사적 위협으로 간주하고 있는 국가는 '북한'으로 작년 71.6%에서 9% 포인트 증가한 80.4%이고 '중국'이 작년 64.3%보다 증가한 72.8%로 그 뒤를 이었다. 또 '러시아'는 작년 36.0%에서 올해 50.0%로 크게 증가했다. '한국'을 군사적 위협으로 간주하는 일본인은 작년 11.2%보다 다소 증가했지만 16.9%에 불과했다. 한국인이 생각하는 군사적 위협국도 '북한'이 83.4%로 가장 많았다. 2위는 '일본'으로 작년 58.1%에서 20% 포인트 이상 감소했으나 37.7%가 응답했고, 3위는 36.0% (작년 36.8%)인 중국이었다. 한국인이 일본을 군사적 위협으로 느끼는 가장 큰 이유는 '일본이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 60.1%로 뚜렷이 드러났다. 그 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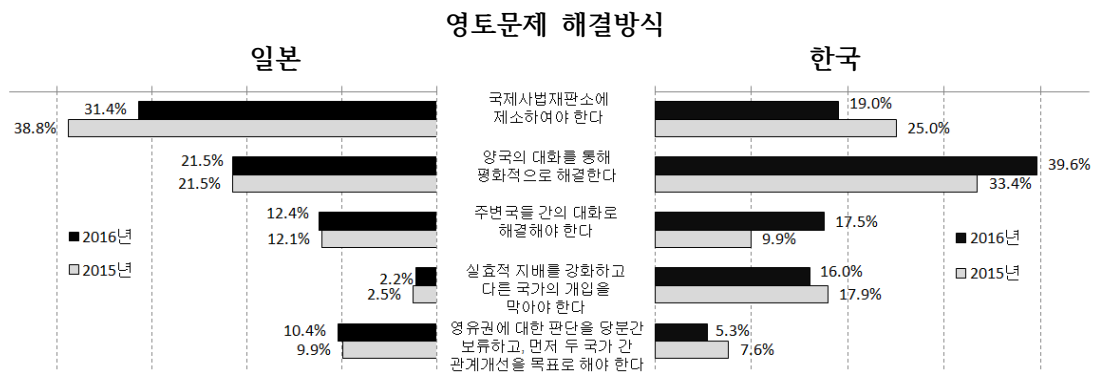
음으로는 '전쟁책임에 대해서 여전히 일본정치가 모호한 자세를 취하기 때문'(48.6%), '일본정치의 일부에 존재하는 우경화 때문'(42.0%)이 뒤를 이었다. 한일 간 군사분쟁을 우려하는 인식에는 큰 차이가 있었다. 한일 간 군사분쟁을 우려하는 한국인은 37.2%였고, 일본인은 8.1%에 불과했다.

자국 및 상대국의 핵무장에 대한 평가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한일 양국의 핵무장에 대한 평가도 이번 조사에 포함됐다. 일본의 핵무장에 대해 일본인의 80.3%, 한국인의 82.2%가 '반대'했다. 한국의 핵무장은 일본의 82.5%가 반대했지만, 한국인의 59.0%는 자국의 핵무장을 '찬성'해 '반대'인 36.1%를 상회했다. [핵무기 개발을 시도하고 있는 북한과 접경해 군사적 긴장 관계 있는 한국 상황, 그리고 2차 대전 때 핵무기를 경험한 일본 상황이 각각 특수하게 반영된 결과로 풀이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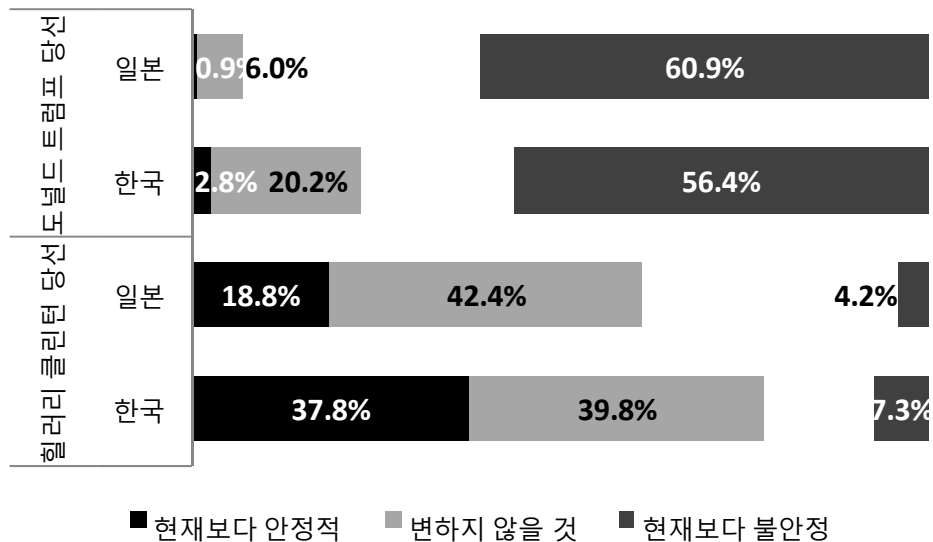
8. 영토문제 해결방식으로 일본인은 "국제사법재판소 제소" 선호, 한국인은 "양국간 대화 통한 평화적 해결"이 다수
대화를 통한 평화적 해결 선호하는 한국인의 입장 증가 (양국 간 혹은 주변국간 대화 해결 43.3 --> 57.1)



영토문제의 해결책으로서 일본인에게 가장 많은 응답(31.4%)은 '국제 사법재판소에 제소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한국인의 경우 '양국 간 대화를 통해 평화적 해결을 목표로 한다'는 입장이 가장 많았다. '주변국간 대화로 해결'까지 포함할 때 '대화를 통한 평화적 해결'은 57.1%로 작년 43.3%보다 크게 증가했다. 그 외에 '실효 지배를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한국인도 16.0% 된다.

9. "트럼프 대통령 되면 동북아 안보 불안정해질 것" 한일 양국민 60% 우려

미국대선에 따른 동아시아 안보환경



2016년 11월 미국 대선 결과 힐러리 클린턴 대통령이 탄생하면 일본인의 42.4%는 동북아의 안보환경에 '영향이 없다'고 응답했고 '더 안정화될 것'이라는 의견은 18.8%로 20%에 못 미쳤다. 한국인도 '영향 없을 것'이라는 응답이 39.8%로 가장 많았지만 '더 안정화될 것'이라는 응답도 37.8% 존재했다. 한편 도널드 트럼프가 대통령에 당선되면 일본인의 60.9%, 한국인의 56.4%가 '더 불안정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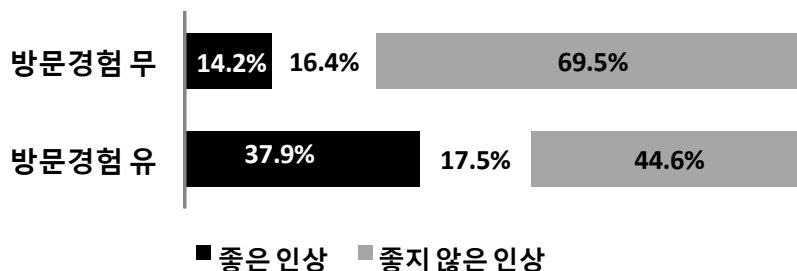
10. 한일관계에 대한 자국 언론보도 태도
: 한국인의 부정적 인식 증가 (51.7% ' 58.9%),
한국인 60%, 일본인 42% '인터넷상의 여론이 민의 제대로 반영하지 않아',
'적절히 반영하고 있다'는 응답은 감소

자국 언론이 한일 관계의 보도에 있어 '객관적이고 공정한 보도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 한국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응답이 58.9%로서 지난해 51.7%보다 늘어났고, '그렇다'는 응답은 18.1% (지난해 26.5%)로 20% 미만에 머물러 있다. 일본에서는 '어느 쪽이라고도 말할 수 없다/모르겠다'며 판단을 유보하는 응답이 51.4%(지난해 43.0%)로 가장 많았고, 그 뒤를 이어 '그렇지 않다'는 응답이 27.0% (지난해 28.2%)로 '그렇다'는 응답이 21.3% (지난해 28.8%)로 나타났다.

인터넷상의 여론이 민의를 제대로 반영하고 있는지에 대해 한국인은 '적절히 반영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작년 51.2%에서 증가해 60.1%였다. '적절히 반영하고 있다'는 응답도 작년 35.2%에서 올해는 22.1%로 감소했다. 한편 일본인은 '적절히 반영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42.0%, '적절히 반영하고 있다'는 응답은 9.3%였다. '어느 쪽이라고 말할 수 없다/모르겠다'고 판단을 유보한 일본인도 48.3%였다. 인터넷 댓글 등이 민의와 괴리되어 양국 국민정서를 부정적으로 자극하고 있다는 일종의 '자성론'을 유추할 수 있는 대목이다.

11. 일본인의 한국방문 경험은 20%, 한국인의 일본 방문 경험은 30%
상대국 방문 여부는 상대국 인상에 긍정적 영향 미쳐

일본 방문경험에 따른 한국인의 일본에 대한 인상



일본인 중 한국 방문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사람은 22.7% (지난해 26.0%), 한국인은 29.4% (지난해 26.0%)에 그쳤다. 그러나 한국인은 조사를 시작한 이후 4년 연속으로 '있다'는 응답이 증가하고 있다. 한일관계의 경우 양국 국민들 사이의 교류와 접촉이 커질수록 상호 긍정적 태도가 강화되는 패턴이 발견된다는 점에 주목할 필

요가 있다. 이번 조사에서 일본 방문경험이 있는 한국인은 일본 방문경험이 없는 한국인보다 일본에 대해 좋은 인상을 가지는 비율이 2.5배에 달했다. 같은 이유로 방문경험은 부정적 인상의 비율도 저하시켰다. 2015년 제3회 한일국민상호인식조사 결과 역시 같은 패턴을 유지하고 있다. 일본 방문 경험이 있는 한국인이 일본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비율(37.9%)이 일본 방문 경험이 없는 한국인이 일본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비율(14.7%)의 두 배가 넘는다. 이 점에서 한일미래대화를 포함해 민간교류의 증가가 상호 우호적 태도를 강화시킨다는 경험적 증거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2016년 제4회 한일 국민 상호인식조사 개요】

한국의 민간싱크탱크인 EAI와 일본의 공인NPO인 言論NPO는 한일 양국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상호인식조사를 2016년 6월부터 7월까지 진행했다. 본 조사의 목적은 한일 양국 국민의 상대국에 대한 이해의 현황 및 그 변화를 면밀히 파악하여 양국 국민 간에 존재하는 인식의 차이를 해소하고 상호 이해를 증진시키는 데 있다.

본 조사 결과는 두 기관이 한일 양국의 관계개선을 목적으로 2013년 5월에 창설한 한일 민간대화(제4회 한일미래대화: 2016. 9. 1-2 개최 예정)에서 함께 발표되고 논의 하는 방식으로 활용된다.

한국측의 여론조사는, 전국의 19세 이상의 남녀를 대상으로 6월 16일부터 7월 5일까지 조사원에 의해 면대면 면접 방식 의해 실시되었다. 유효 회수 표본 수는 1,010명으로, 응답자의 최종학력은 초졸 이하가 7.5%, 중졸이 10.2%, 고졸이 37.5%, 대학재학/중퇴(전문대학 포함)가 12.1%, 대졸이 31.8%, 대학원 이상이 0.8%였다.

일본측의 여론조사는, 일본 전국의 18세 이상 남녀 (고교생을 제외)를 대상으로 6월 18일부터 7월 3일까지 방문유치회수법에 의해 실시되었다. 유효 회수 표본 수는 1,000명이다. 응답자의 최종학력은 초중졸이 8.0%, 고졸 47.0%, 단기/전문고졸이 19.9%, 대졸이 22.3%, 대학원 졸업이 1.5%였다.

	일본 여론조사	한국 여론조사
조사지역	일본전국	한국전국
조사대상	18세 이상 (고등학생 제외) 성인 남녀	19세 이상 성인 남녀
표본추출 방법	일본 전역 50개 지점. 한 지점당 표본 수는 20명. 전국의 성,연령대별 구성비에 맞춰 할당.	전국을 16개 행정구역별 광역단체 기준으로 분할. 각 지역의 인구비례에 따라 조사대상 수 결정. 지역별 성, 연령구성비에 맞추어 할당.
조사방법	방문유치회수법	조사원에 의한 대면면접조사법
조사기간	2016년 6월 18일 ~ 7월 3일	2016년 6월 16일 ~ 7월 5일
유효회수표본	1,000명	1,010명
응답자 속성	남성 48.8%, 여성 51.2%	남성 49.5%, 여성 50.5%
	초·중졸 : 8.0% 고졸 : 47.0% 단기·전문대졸 : 19.9% 대졸 : 22.3% 대학원졸 : 1.5% 기타 : 0.4% 무응답 : 0.9%	초졸 : 7.5% 중졸 : 10.2% 고졸 : 37.5% 대학재학·중퇴(전문대 포함) : 12.1% 대졸 : 31.8% 대학원 이상 : 0.8%
	20세 미만 : 3.0% 20~29세 : 11.7% 30~39세 : 15.1% 40~49세 : 16.9% 50~59세 : 14.4% 60세 이상 : 38.9%	19~29세 : 17.9% 30~39세 : 17.8% 40~49세 : 20.9% 50~59세 : 20.0% 60세 이상 : 23.4%

【2016년 제4회 한일미래대화】

한일미래대화는 2013년 5월 동아시아연구원(EAI)와 겐론NPO가 공동으로 창설한 민간대화의 장입니다. 한국과 일본 양국 국민들 사이에 존재하는 강한 불신과 상호 이해의 결핍으로 한일관계가 악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민간 대화를 통해 극복해 나가자는 취지로 양 기관은 양국 국민의 인식 동향을 지속적으로 조사하고, 나아가 매년 서울과 도쿄를 오가며 양국 시민사회가 공개적이고 허심탄회하게 논의하는 장을 만들어 한일 우호관계를 만들어 나가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동아시아연구원과 겐론NPO는 각각 한국과 일본을 대표하여 미국 외교협회 (CFR)가 주관하는 세계싱크탱크평의회인 'Council of Councils' (COC)의 상임멤버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2012년 3월 COC창립 총회에서 아시아에서는 한국을 대표하여 동아시아연구원이, 일본을 대표하여 겐론NPO가 창립 멤버로 선정되었습니다. COC참여과정에서 겐론NPO와 동아시아연구원은 불안정한 동아시아 지역질서를 안정화하고, 악화되는 한일관계를 개선하기 위한 대화의 장으로서 '한일미래대화'라는 새로운 민간대화의 장을 만들기로 합의하고 2016년 서울에서 제4회 대화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 【겐론NPO】 조사결과 및 겐론NPO에 관한 소개는 <http://www.genron-npo.net>
- 【동아시아연구원】 조사결과 및 EAI에 대한 소개는 <http://www.eai.or.kr>
- 【문의】 한일미래대화 한국측 준비관련 문의는 김가현 EAI 대외협력팀장(ghkim@eai.or.kr)

겐론NPO
편집국 프레스/오피서 요시자키 히로오
TEL: 03-3548-0511
FAX: 03-3548-0512
MAIL: info@genron-npo.net

동아시아연구원(EAI)
거버넌스연구팀 선임연구원 김보미
TEL: 02-2277-1683
FAX: 02-2277-1684
MAIL: spring@eai.or.kr